

# 생존 위기서 찾은 6차 산업화...가공·관광으로 재도약 준비



풍요로운 가막만에 자리한 여수 안포어촌계는 지난 2019년부터 피조개 폐사율이 높아지고, 새조개도 사라지면서 어촌 존립 위기에 봉착했다. 여수 안포어촌계는 화양면 전체 어촌계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여수 안포리 안정마을 전경.



## 전남 혁신 어촌의 '바다 이야기'

〈2〉 여수 안포

### “주민 대다수 고령...꾸준한 소득 기반 필요 어패류 양식, 가공식품 생산·유통 등 추진”

#### 이희한 안포 어촌계장

“기후 변화에 따라 고갈돼 가는 어족 자원, 너무도 미흡한 기반·복지시설, 어민 소득 정체 또는 감소 등 화양면 어촌들이 모두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개별 어촌이 이를 극복할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촌이 직면한 이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여수 안포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이희한 어촌계장은 최근 3~4년 전부터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팔아서 이익이 되는 수산물도 사라지고, 나이든 주민들은 힘든 어업만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유통·관광 등 새로운 일에 나설 수도 없다. 소득은 감소하고, 활기는 사라지고 있으며, 미래는 암울하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어장·갯벌에서 하는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육체 노동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은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앞바다에 인공 양식장을 조성해 어패류 양식에 나서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냉동식품 등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생각이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반·편의 시설의 설치를 여수시, 전남도 등에 강력히 요구할



각오다.

“우선 바다를 살려야 합니다. 깨끗한 바다가 없이는 어촌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촌을 도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합니다. 진정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촌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안포 어촌계는 5년 전까지 새조개가 가끔 앞바다에 나타나고, 피조개 양식이 잘 돼 높은 소득을 자랑했던 곳이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주민 1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되는 어로작업에는 인건비, 선박 기름값, 식대 등 600만~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한 번 작업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어 공동자산도 계속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전남도가 함께 설립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6차 산업화’(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관광의 융복합)에 나서면서 피조개 분말가루, 피조개 어포 등 상품들을 출시하고, 마을 입구에 판매점까지 차리는 등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피조개가 들어간 만두, 돈까스, 볶음, 꼬치 등을 개발해 식당 운영에 들어가는 등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무엇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안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지난 2019년이다. 그동안 간간히 폐사가 반복됐으나 큰 문제가 없었던 피조개가 절반 이상이 빈 껍데기로 나왔다. 공동작업을 할 때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주민들은 피조개 잡이를 포기했다. 2~3년에 한 번씩 마을 앞바다를 찾아 주민들에게 황재를 안겼던 새조개도 자취를 감췄다. 여수 가막만 일대의 기후 위기에 따른 수온 상승, 해양 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급변하고,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산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새조개와 피조개는 사라지고 최근에는 갈매, 청가 등 상대적으 가 가격이 저렴한 해조류만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대책을 협의한 끝에 안포 어촌계는 지난 2021년 4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와 ‘안포 어촌의 새 도약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체결하며, 새조개 양식에 도전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는 해양 및 갯벌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안포에 시험어장을 설치해 새조개를 종패 수준(크기 2cm)에서 판매 가능한 수준(8cm)까지 키워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었다. 어민들이 어려워하는 양식 신기술도 집중적으로 전수해 지속가능한 방법도 모색했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이 같은 시도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막만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여수 안포가 수산물 생산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어촌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 앞에서 안포 어촌계는 우선 비슷한 여건에 있는 화양면 어촌계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월 30여 개의 어촌계들이 기후 위기 속 가막만 및 여지만 생태계 복원, 어민 소득 증진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공동 대응,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해 ‘화양 어민 발전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개별 대응해 이웃 어촌과의 갈등·마찰이 잦아지고,

#### 새조개 채취·피조개 양식

#### 고소득 자랑하던 어촌

#### 기후 변화로 어패류 사라져

#### 인근 30개 어촌계와 발전대책위

#### 어패류 가공 거점시설 만들고

#### 백리섬섬길 중간 잇점 활용

####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객 유치도



지난 2016년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해 들어선 한옥 회의실 전경.

시설 과잉 설치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각 자원, 역량, 경쟁력 등을 검토해 역할과 기능을 나눠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안포 어촌계가 선도해 여수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과 함께 ‘화양면 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안포 어촌계는 갈수록 떨어지는 생산 기능을 대신해 가공, 유통·관광 등 2·3차 산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가공 거점시설을 설치해 가막만 일대 어촌계에서 생산하는 어패류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또 고흥과 여수 돌산까지 10개 섬들을 11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39.1km의 백리섬섬길의 중간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독특한 어촌 음식 등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길 방침이다.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여수시, 전남도,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인재다. 안포 어촌계는 능력 있고 안포에 정착해 어울려 살 수 있는 귀어 희망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어촌계 가입 조건을 대폭 낮추고, 빈집·일자리 소개, 맨토링 실시 등 어촌에 생소한 도시민이 어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수 안포어촌계는 가공, 유통, 관광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도시민 유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희한 어촌계장의 주장이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안포어촌계에서 진행된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귀어 희망 도시민들.